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사의 역사적 발전양상(1946-2016)

조성국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282
2. 신학 예과과목에서 종교교육과로의 실험(1946-1976) | 284
 - 2.1.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의 배경 | 284
 - 2.2. 박손혁과 종교교육 | 286
 - 2.3. 종교교육과 신설 | 288
 - 2.4. 이근삼을 비롯한 고려신학교 교수(강사)들과 기독교교육 | 290
3. 고려신학대학 및 고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의
확립(1976-1989) | 293
 - 3.1. 김용섭의 교육학 및 교양교육(1969-1976) | 293
 - 3.2. 기독교교육학과 설치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확립(1977-1989) | 294
 - 3.3. 기독교교육학과의 전공교육과정 | 299
4.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발전과 확장(1990-2016) | 301
 - 4.1.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기독교교육과로 | 301
 - 4.2. 후속세대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 303
5. 나가면서 | 309



Abstract

The Historical Developmental Modes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of Kosin University(1946-2016)

Joh, Songguk

(Prof. of Christian Education in Kosin University)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of Kosin University is depicted into three phases: (1) from subject education of (pre-)seminary course to experimenting an independent department(Religious Education, 1956-1976), (2) the settlement of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1977-1989), (3) the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education and research(1990-present). In the first phase, the Christian education that was an essential activity of church and Christian communities, was taught as a subject in practical theology of (pre-)seminary course. The demand of specialization caused it to develop an differentiated department in 1961. However, it could not last few years because of the return of Korea Theological Seminary from the union with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second phase, the department was reopened in 1977 and settled on the Reformed theological/philosophical foundation

both in faculty and in curriculum. In the third phase, the department has administered the undergraduate course of religion teachers' education in secondary schools and activated graduate schools. (1) The course educ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have intended to deepen understanding on church education, faith education and Christian schooling on the basis of Reformed theology and Christian world view, (2) to differentiate and specialize Christian counseling course, (3) to make new opportunities in youth education and in life long education. The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has developed the Reformed Christian education for church and community for the past 70 years.

Key Words | Korea Theological Seminary, Kosin College, Kosin University, religious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고려신학교,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 고신대학교, 종교교육, 기독교교육

1. 들어가면서

기독교신앙의 이해 및 의미탐구와, 기독교신앙으로 형성된 교회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탐구를 학문의 주된 관심사로 삼는 학문은 신학이다. 그리고 기독교신앙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거나 가르치고, 개인 그리스도인을 성숙함에 이르도록,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집단을 이상적인(교회)공동체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일은 교육활동이다. 신학은 전형적으로 혼자, 혹은 학자 집단에서의 탐구,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더 전문적인(혹은 성숙한) 사람이, 보다 덜 전문적인(혹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전문적인(혹은 성숙한) 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의사소통은 교육활동이다. 신학 탐구내용은 선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신학자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교역자)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쳐진다. 대부분의 신학자는 학교에서, 목사(교역자)는 교회에서 교육활동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자와 목사(교역자)는 기독교교육자들이다.

학문의 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 신학이 기독교신앙과 교회, 보편진리, 사회와 자연세계조차 탐구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 신학은 철학과 연구범위의 경계가 모호했고, 진리(혹은 지식)의 교수학습과 인간교육은 신학과 철학의 범주 안에 있는 실천적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기독교교육은 오랫동안 신학의 실천적 활동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신학자와 목사는 교회 옆에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학교의 교사와 장학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본주의 시대정신에 따른 세속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근대이후, 영역에 있어서 교회의 주권은 크게 축소된 반면, 교회로부터 독립한 국가의

주권은 전 방위적으로 확장되었다. 신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점진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다. 학문에 있어서 정통 신학은, 성경과 교회의 원리 탐구로 크게 축소되었고, 보편학문이었던 철학은 신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체 안에서 먼저 분화되고, 이어 근대적 학문방법론이 적용되면서 더욱 세분화된 근대 학문들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 자체를 탐구하는 (일반)교육학은 철학에서 분화되어, 근대학문인 심리학과 사회학을 도구로 삼는, 독립적인 실천학문으로 확립되었다. (일반)교육학은 근대국가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교육을 보편화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을 통한 국가경쟁을 추구하면서 더욱 유용하면서도 긴요한 학문이 되었다.

(일반)교육학과 달리 기독교교육학은, 처음부터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의 교육활동을 위한 학문이었다. 신학의 실천 활동으로 간주되어 온 기독교교육 활동과, 기독교교육 영역 및 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에는 세속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곧 세속국가 주도의 일반교육과 구별하여, 기독교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독교학교의 학문이기도 했고,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일반)교육학과 구별하여 기독교세계관에 따른 교육학을 확립하려는 신학적 학문이었다. 그래서 기독교교육학은 교육활동과 교육기관을 위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학문과 신학의 세속화를 불신한 교회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대학교를 의존하는 대신 새로 설립한 신학교들은, 한편으로는 신학의 근대적 세속화에 대응하여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신학교육을 실행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사회와 교육의 발전에 부응하여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을 전문화해야 할 필요에 부응해야 했다. 이에 교회교육 전문화 요구와 기독교공동체의 학교교육요청에 부응하여, 신학과를 확장하거나 분화하여, 기독교교육에 전문화된 학과로 기독교교육(학)과를 개설한 것이다.

기독교교육학은,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개교회 의식이 강하고 주일학교가

활성화된 북미에서는 교회교육을 위한 학문으로 간주되어왔고, 신앙고백적 유대를 기초로 교단적 기독교공동체가 잘 유지되어온 개혁교회에서는 기독교 학교교육을 위한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전자는 신학대학 내에서 신학과와 나란히 존재하고, 후자는 신학대학과 구별된 (기독교)교육(사범)대학으로 확장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교육학은 전자의 전통에 속해 있으면서, 후자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왔다. 기독교교육(학)은 학회의 학문 구분에서 신학회의 분과학회이다. 일부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연구방법론과 연구도구 활용, 연구발표를 위해 개별적으로 (일반)교육학회의 다양한 분과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기독교교육학은 철학, 일반학문, 일반대학교, 사회와 국가에서 발생한 학문이 아니라, 신학, 신학교, 교회, 기독교공동체에서 발생한 학문이다. 기독교교육학은 신학에서 분화되어 발전하였으므로, 신학의 전통으로 표현한다면 교육신학이고, (일반)교육학의 전통으로 표현하면 종교(기독교)교육학이다.

2. 신학 예과과목에서 종교교육과로의 실험(1946-1976)

2.1.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의 배경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처음부터, 복음전도를 통한 지역교회 설립이라는 협의적 목표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파송 받을 때부터 선교사들의 관심은 국가적 단위의 조선 전체 복음화에 있었다. 선교사들은 미래에 조선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그리스도인들의 인적 자원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려고 전국에 많은 선교학교들을 세워 운영하였다. 동시에 조선

전체를 큰 지역 단위로 분할하여, 조선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함과 동시에, 미래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선교학교의 학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주일학교들을 전국연합체로 엮어 조선전체의 복음화를 추구하였다. 조선인 교회에는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독려했고, 선교사들은 중등과 고등의 선교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복음으로 변화된 후 잘 교육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조선을 기독교적인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배재학당(1885), 경신학당(1886)과 이화학당(1886) 등 최초의 선교학교들이 188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었고 1910년대에는 전국에 796개에 달한 반면, 조선인 목회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세워진 평양장로교신학교는 1901년에야 설립되었고, 상당기간 단일 신학교로 운영되었다. 감리교 협성신학교(1905), 성결교 경성성서학원(1911)등 교단 신학교들도 마찬가지였다.

기독교교육활동은 신학교육보다 앞서 시작되어, 신학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들을 준비하였고, 또 신학교육은 목사가 된 후 교회사역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선교교육 동역자가 되어, 먼저 주일학교, 그리고 점차 선교학교의 기독교 교육사역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일을 염두에 두었다. 감리교 신학교육은 목사의 선교학교 사역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으므로 일찍이 대학인가에 관심을 가졌고,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신학교육과정을 운영했다. 비록 평양장로교신학교의 신학교육은 복음주의 신학적 특성과 시대상황적 여건 때문에 선교학교 사역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에 소극적이었지만, 그래도 1920년대에 이미 기독교교육의 도구학문인 ‘심리학’을 개설하였다.¹⁾ 그리고 기독교교육관련 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지는 못했다고 해도 주일학교교육을 목사의 주요사역으로 간주하였다. 그 예로, 평양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한 남궁혁은 1921년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초대회장이 되었고, 1924년 제9회 세계주일학교대회에서 조선주

1) 김성복,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 신학교육 비교연구: 장로교회를 중심으로』(계명대학교 교육학박사논문, 1996), 99.

일학교연합회가 정회원 기관으로 가입될 때 정인과와 대표로 참석했다. 남궁혁은 그 이듬해부터 신사참배 강요문제로 폐교될 때까지 평양장로교신학교의 대표적인 조선인 교수(1925-1939 재직)로 일하였다.

2.2. 박손혁과 종교교육

평양장로교신학교 교육과정은 해방이후 재건된 보수적 경향의 장로교신학교들의 교육과정에 모델처럼 적용되었다. 1946년 설립된 고려신학교는 평양장로교신학교교육의 정통신학교육 회복을 의미했으므로 그 신학교육과정 모델과, 박윤선이 경험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신학교육과정 모델을 따라 교수진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공과목들을 개설하였다.

초기 고려신학교는 교수진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한 연유도 있었지만 성경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므로 기독교교육관련 과목들을 다양하게 혹은 지속적으로 개설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1950년대 초에는, 예과에 ‘종교교육’(안용준)과 ‘종교심리학’(장석인)이 개설되었고²⁾ 1959년에는 ‘심리학’(이상근)이 개설되었다.³⁾ 특히 1961년에는 ‘교육사’(장석인)와 ‘종교교육’(박재영)이 모두 예과 1,2학기에 연속적으로 개설되었다.⁴⁾

이 기간 동안 기독교교육 관련 과목 개설과 강의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선교학교인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창신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고, 이후 평양장로교신학교를 졸업했던, 한상동의 친구 박손혁이었다. 한상

2) 『과수군』 34 (1953), 39.

3) 고려신학교 교수회의록, 제123회(1959.3.13.).

4) 고려신학교 교수회의록, 제165회(1961.4.1), 174회(1961.9.4); 현유광은 1958-1963년 사이에 ‘종교교육’이 개설되었고, 이 과목은 이후에 ‘교회교육’, ‘주교교육’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58년에 ‘교육학특강’이 개설된 일이 있다고 했다. 현유광, “고려신학대학원이 봉사신학 교과과정의 회고와 전망”, 『개교50주년 기념논문집: 하나님 앞에서』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1996), 112.

동의 브레인으로 인정받곤 했던 그는, 1954년부터 1967년까지 고려신학교 교수직을 수행하는 동안 주로 교무처장을 담당하면서 기독교교육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였고, 헬라이어와 신약성경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면서도 종종 심리학 혹은 종교교육도 강의하였다.⁵⁾

고려신학교가 발간하였던 잡지 『파수군』에 1952년 8호부터 종교교육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첫 번째의 글은, 박손혁의 “예수와 개성”이다. 교단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사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하기도사대회에서, 박손혁은 ‘아동심리학’을 주제로 특강하였다. 1953년에는 이근삼이 “아동의 본능운동과 그 교육”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⁶⁾

『파수군』에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글을 많이 기고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더 들면, 최대연이 “시청각교육적 종교교육”(1953), “주교교사자격론”(1957), “하기아동성경학교교육론”과 “방학중의 아동지도문제”(1958)를 기고했고, 박희천은 “주교지도의 벗”(1956-1957)을 연재하였고, 오병세는 “하기성경학교에 관한 것”(1959)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종교교육 섹션은 주일학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박손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아동설교, 계절성경학교와 주일학교 공과요약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고신교단은 1952년 9월 11일,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로회를 조직하면서 교회교육과 관련된 3부서를 두었다. 신학문제를 다루는 신학부, 학교교육문제를 다루는 학무부, 그리고 종교교육을 다루는 종교교육부가 그 해당부서였다. 종교교육부의 경우 박손혁이 초대부터 1960년까지, 그 중 1년(1956년)을 제외한 전 기간 동안 종교교육부장으로 선임되어 주일학교교육과 교재발간, 통신성경학교를 위해 주도적으로 일하였다.⁷⁾

5) 박재영, “나의 아버지 박손혁 목사”, 『장로교회와 역사』 제2호 (2009), 169;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2006), 190.

6) 『파수군』 32 (1953), 22-23; 33 (1953), 18-21.

더불어 1954년에는 안용준이 부산 전포동에 기독교(선교)학교를 설립하였다. 안용준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육기관을 꿈꾸고” 평화학원을 설립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했다.⁸⁾ 이 학교는 비록 행정적으로 독립적인 교육기관이었지만 고신교단 및 고려신학교와 동일한 정신적 유대를 가진, 고신교회의 중고등학교로 이해되었다. 『파수군』은 1954년부터 1962년까지 평화중고등학교의 신입생모집 홍보 및 졸업식 소식을 알려 동지적 유대감을 드러내었고, 제8회 교단총회는 학교교육을 위해 전국교회의 헌금을 결의하여 지원하였다. 고신교단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결국 정식 학교등록에 이르지 못했지만, 1950년대에 고신교단은 고려신학교와 더불어 기독교학교설립과 운영을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⁹⁾

2.3. 종교교육과 신설

1960년 12월 13일 고신과 합동의 교단합병으로 1961년부터 고려신학교와 총회신학교도 합병하면서 이전에 예과 과목으로 존재했던 기독교교육은 독립된 전공학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총회신학교가 1961년 3월 22일, 학제를 대학부 4년, 별예과 2년, 본별과 3년, 종교교육과 4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합병한 고려신학교도 동일 학제를 수용하여 처음부터 본과, 별예과, 종교교육과 신입생 모집을 공고하였다. 두 학교는 1961년 12월에 완전히 합병하였으므로 이후 부산 고려신학교 이름의 신입생 모집은 중단되었다.¹⁰⁾ 이 기간 동안 고려신학교(총회신학교 부산분교) 교장은 종교교육의 이해에

7) 이상규, 강용원, 나삼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교육 역사(1952-2012)』 (서울: 생명의 양식, 2016), 67-72, 327-327. 박순혁은 2010년 9월 총회교육의 해에 초기교단교육 유공자로 선정되어 헌액되었다.

8) 『파수군』 39 (1954), 46.

9) 이상규, 강용원, 나삼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교육 역사(1952-2012)』, 75.

10) 『파수군』 107 (1961), 76; 117 (1962), 67.

있어 선두적 리더였던 박순혁이었으므로 종교교육과를 신설하는 총회신학교의 정책은 문제없이 수용되었다.

합병된 총회신학교의 종교교육과는, 처음에는 대학부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신설학과였으나 1963년부터는 남학생도 모집하였다. 1962년 총회신학교 신입생 모집에서는 별예과에도 종교교육과를 개설하였다. 그 해 신입생 모집결과, 대학부 신학과 16명, 종교교육과 2명, 본과 3명, 별예과의 종교교육과 14명이 합격했다. 총 38명의 신입생 중 16명이 종교교육과 신입생들이었다.¹¹⁾

1963년 총회신학교는 대학부 종교교육과를 종교교육부로 변경하였고, 입학정원을 증원하여 20명을 모집 공고했다. 1963년 1월부터는 교회의 종교교육사역자 필요성에 부응하여, 총회신학교 타전공자들과 졸업생들도 종교교육부 교육과정을 통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종교교육부 교육과정을 개방하고, 청강생을 모집하여 교육하였다. 졸업생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종교교육부 수료인정은 기독교교육 관련 과목 40학점으로 이루어진 전공교육과정 이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1) 심리학, 기독교교육원리, 가정교육, 인간발달, (2) 종교개혁사, 주교조직과 행정, 아동설교, 학습심리, (3) 유년부교육, 청소년부교육, 장년부교육, 실습, (4) 교육연구법, 현대기독교교육운동, 생활지도,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었다.¹²⁾

총회신학교는 기독교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1963년에는 총회신학교 교수 명신흥, 한철하 등에 의해 한국기독교교육연구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에는 연구회의 운영이사회가 조직되었다. 1964년 총회신학교 이사회는 신학예과와 종교교육과로 문교부에 대학교 인가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1) 『과수군』 118 (1962), 72.

12) 『과수군』 127 (1963), 45-46.

이러한 배경에서 고려신학교에도 1961년부터 종교교육 관련인 ‘교육사’(장석인), ‘종교교육’(박재영) 등의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3년 고신교단 환원이 선언되고, 1963년 11월 6일 고려신학교 복교 선언에 이어, 11월 20일부터 부산에서의 수업 재개가 공포되자 교수들과 학생들은 양학교로 나뉘었고, 이후 고려신학교는 종교교육(학)과의 지속적 발전을 추동할 동력을 잃었다.

2.4. 이근삼을 비롯한 고려신학교 교수(강사)들과 기독교교육

1963년 12월 12일에 열린 고려신학교 졸업식에서, 종교교육과 1명(함숙진) 졸업생이 배출되었다.¹³⁾ 고려신학교가 복교하면서 함숙진은 고려신학교 종교교육과의 역사적인 첫 졸업생이 되었다. 복교한 고려신학교도 총회신학교 처럼 종교교육과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1964년 1월 31일 고려신학교 이사회 실행위원회는 ‘고신대학’의 명칭 하에 학과장을 임명하였으며, 신학과 학과장은 오병세, 영문과 학과장은 홍반식, 그리고 기독교교육과 학과장은 이근삼이었다. 복교한 고려신학교가 잠시 잠정적으로 ‘고신대학’으로 칭해졌고, 총회신학교의 종교교육과는 ‘기독교교육과’로 개명되었으며, 기독교교육과의 역사적인 초대 학과장은 이근삼으로 임명되었다.¹⁴⁾

기독교교육과의 운영은 순조롭지 못했다. 기독교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정도의 신입생을 얻지 못해서이기도 했지만 고려신학교 전체 신입생의 수도 적었다. 결국 기독교교육과가 독립학과로 존속되지 못했고, 총회신학교와의 합병이전처럼, 대학부에 ‘심리학’(김진경), ‘종교교육’(박재영) 과목들만 개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초대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던 이근삼은, 비록 독립학과 운영은 불가능했지만 이후에 기독교교육과의 재설립을 위해

13) 『개혁주의』 2 (1963), 30.

14) 『개혁주의』 4 (1964), 28.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노력을 했다. 1964년 4월에는 기독교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신이 유학 중 공부했던 미국 고돈(Gordon)대학교의 기독교교육학자인 샤플(Charles Schauffle)을 초청하여 1달 동안의 집중특강 기회를 제공했다.¹⁵⁾

샤플의 방문특강은 기독교교육에 대한 전공 특강의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근삼의 요청이 이후 수용되어 고려신학교를 위한 기독교교육학자 양성 유학 기회가 열렸다. 샤플이 고려신학교 교수 확보를 위한 유학을 주선해 주었으므로 고려신학교 교수회는 강사였던 박재영을 기독교교육학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였다.¹⁶⁾ 박재영은 1966년 출국하여 고돈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과정을 다 마친 후 귀국하려 했으나, 당시 고려신학교는 여러 사정으로 그의 임용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종교교육학 석사학위 취득대신, 고신신학대학원에서 기존 학점을 인정받아 1년 추가 과정을 이수하고 목회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후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사역자로 일하면서 재미고신총회 초대총회장, 재미고려신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했다. 그가 당시 귀환할 수 있었다면 고려신학교 최초의 기독교교육학자가 되었을 것이고, 기독교교육과의 재개설이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1967년 잡지 『개혁주의』가 마련한 ‘교단의 근대화’ 좌담회에서 오병세는 교회에 집중된 관심을 보여 교회교육을 논하였고, 김진경은 기독교학교설립을, 그리고 이근삼은 개혁주의 전통에서처럼 기독교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였다.¹⁷⁾ 이근삼은 1967년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을 소개하기 위해 고려신학교 잡지인 『개혁주의』에 파케마(Mark Fakkema)의 “기독교교육원론”을 번역하여 연재하였다.¹⁸⁾ 이근삼은 1965년 교단 종교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가 작성하여 총회가 채택한 ‘고신교단의 교육이념과 목적’의 초고

15) 『파수근』 15 (1966), 35.

16) 박재영은 박손혁의 아들이며, 고려신학교에서 예과를 마친 후 연희대학교 신학과로 옮겨 졸업하였고, 고려신학교에서 영어, 헬라어, 종교교육을 강의했다.

17) 『개혁주의』 14 (1966), 19-22.

18) 『개혁주의』 18-20호 (1967).

도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기독교교육을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세계관의 기초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후에 이근삼은 “우리 교단 교회교육의 특성”에서 이를 설명하였다.¹⁹⁾

총회신학교와 달리 기독교교육과가 확립되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고신교단 교회교육은 고려신학교 잡지인 『개혁주의』의 글들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오병세는 “원하는 인간교육”(1964), “교회교육의 재정비 대책”(1965), “가정과 신앙교육”(1966), “개혁주의 교회교육”(1970) 등의 주제 글을 실어 주로 교회교육에 초점 맞춘 기독교교육 기초와 실재를 논했다. 홍반식도 “교회학교와 국가”(1964)의 글을 실었다.

『개혁주의』와 『고신대학보』, 그리고 『교회생활』에 교회학교교육을 염두에 둔 글들이 더러 실렸는데, 주요한 기고자들은 다음과 같다. 정홍권은 “생명의 양식에 대한 소고”(1966), “겨울방학과 가정교육”(1974), “가정과 종교교육”(1975)을 기고했다. 신현국은 “중등부 교회교육의 중요성”, “미국의 교회교육”(1968),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1974)을 기고했다. 김성린은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1975)를 기고했고, 심군식은 “교회학교운영의 새로운 방향”, “계절학교운영과 관리”(1974), “계절성경학교의 운영방안”(1977)을 기고했다. 김진섭은 “계절교회 학교의 운영”(1975), “어린이 복음화의 이론과 실제”(1976)를 기고했고, 양승달은 “기독교적 가정의 본질적 요소”(1977), 김권호는 “교회교육의 문제점”(1977)을 기고했다. 그리고 김동철이 “시청각 교육으로서의 칠판사용”(1968), 추정선이 “교회교육에 있어서의 원리”(1977), 조용순이 “가이던스의 의미”(1975) 등 교육방법 관련 글을 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고려신학교에서 신학 혹은 교양과목을 가르쳤던 대부분의 교수 혹은 강사들이 교회학교 교육에 실제적 유익을 제공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기독교교육은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19) 『개혁주의』 41 (1970), 10-14; 이상규, 강용원, 나삼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회교육 역사(1952-2012)』, 90.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반교육과 교회(봉사)사역의 경험적 기초에서 교회교육을 지도하였다.

3. 고려신학대학 및 고신대학 기독교교육학과의 확립(1976-1989)

3.1. 김용섭의 교육학 및 교양교육(1969-1976)

고려신학교는 1967년 문교부로부터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때 교역자양성과 기독교교육과 간호교육의 뜻을 명시하였고, 1969년 9월, 대학동등학력인정 학교가 되면서 교양교육을 위해 교육학자도 채용하였다. 교육학자의 채용은 신학교육을 위해서만 아니라 기독교교육과의 재설립을 분명히 염두에 두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²⁰⁾

김용섭 교수(1929- ; 1969.9-1996.2 재직)은 고려신학교설립이후 임용된 첫 번째의 교육학자였다. 미국 트리니티대학교(Trinity University)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육학자였지만, 이미 전북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서양)철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했고,²¹⁾ 대학졸업이후부터 11년 동안

20) 설립자 한상동은 고려신학교가 대학으로 인가받아 확립되는 1969.3부터 1974.3까지 고려신학교 9대 교장과 고려신학대학 1대 학장을 역임하였다. 한상동의 대학 이해에는 그의 동생이며 동역자인 한명동, 그리고 그의 조카인 이근삼의 영향이 지배적이였다. 이근삼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과 재설립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왔으며, 한상동의 또 다른 조카인 한기태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이미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한상동은 1971년 11월, 한기태가 교육학박사과정에 있을 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신학대학에서 일하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겼다(각주 27 참고).

21) 석사논문은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과 종교』(전북대학교 대학원)였다.

전주기전여고와 순천매산고에서 영어와 철학 교사로 일한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교육학 외에도 철학, 영어, 독일어를 가르칠 수 있어 소규모 신학대학 교양교육에 적합한 학자였고, 또 대학행정 체계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흥미롭게도 교육학자가 임용되어 교육학개론을 강의하였지만, 1972년도 기독교철학과 교리를 가르치던 김성린이 ‘기독교교육’을, 그리고 교단주일 학교행정과 교재집필에 기여하고 있었던 심군식이 ‘주교교육’을 강의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교육이 신학과 교회사역의 영역이라고 간주하여, 신학의 학위와 목사의 직분을 가지지 못한 교육학자의 전문성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1971년부터 1976년, 곧 기독교교육학과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교수논문집』에는 김용섭의 교육심리학 영역 논문들이 두 차례 실렸고, 『교회생활』과 『고신대학보』에는 김성린, 심군식, 신현국, 원종록, 홍관표, 김진섭 등이 기독교교육 지침을 제안하는 글들을 주로 기고했다. 김용섭은 기독교교육을 연구 및 봉사의 과제로 삼아, 점차 전문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교수논문집』 3집에서 “우리나라 기독교신자 대학생들의 교회생활 및 사회현실에서의 적응에 관한 연구”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교회생활』과 『고신대학보』에 교육학적 전문성이 잘 함축된, “주일학교교육과 아동이해”, “유아기의 가정교육”을 기고했다.²²⁾

3.2. 기독교교육학과 설치와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확립(1977-1989)

고려신학대학이 1970년 신학과로 인가받아 1971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 기독교교육학과를 신설인가 받아 1977년 첫 신입생을

22) 『교회생활』 (1974), 17-21; 『고신대학보』 1975.

모집하게 된 것은, 동시대의 맥락에서는 평양장로교신학교에서 비롯된 대한 예수교장로회 주요 세 교단의 신학대학 중, 장로회신학대학이 1965년에 신학과(신학전공, 기독교교육전공)로 대학인가를 받았고, 총신대학(총회신학교)이 1969년에 신학과로 대학인가를 받은 후 1973년 종교교육과도 신설인가 받은 것이 영향을 주었다. 고려신학교는 이들 신학대학들과 한 뿌리에서 나와 해방이후 독자적인 길들로 발전하였으므로 신학의 입장에 따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어왔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미 앞서 서술해 온 바와 같이,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총회신학교(총신대학)와 합병하여 종교교육과를 운영하였고, 환원하여 고려신학교를 복교한 이후에도 잠시 기독교교육과 조직을 유지했으나 여건이 미흡하여 중단되었던 독립학과 교육을, 여건이 구비되어 다시 시작하려 한 것이었다. 기독교계로는 그 동안 비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사역해 온, 신학의 실천분야인 교회교육을 전문화해야 할 필요에 부응한 것이었다.

기독교교육학과를 인가받아 1977년부터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학과교육을 시작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신학대학의 여건에서는, 개혁주의 신학대학에서 신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의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여, 목사이면서 기독교교육학자가 된 교수를 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은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기독교인 (일반)교육학자를 임용한 후 신학을 추가로 공부하게 하여, 혹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독교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기독교교육학자들을 만들어가려고 했다.

1969년부터 교육학을 가르쳐 온 김용섭에 이어, 1977년 교육철학전공의 김성수, 1979년 교육심리학의 한기태와 교육과정의 노경희, 1982년 교회교육의 강용원이 순차적으로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상의 교수들이 기독교교육학과 1세대 교수들이다.

이근삼이 1975년 국제개혁주의고등교육학회가 열린 남아공화국의 네덜란드계 개혁주의 기독교대학교인 포츨스트룸대학교(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를 방문하여 개혁주의 기독교학문 및 기독교대학을 위한 교수 학위연구유학 협력을 요청했던 것이 결실하여, 1978년 그 첫 수혜자로 김용섭이 유학하여 기독교교육철학 전공으로 1981년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용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이론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한국의 기독교교육학에 적용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²³⁾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은 철학신학이라는 명칭처럼 교육신학과 같은 성격의 학문이다. 김용섭은 이후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기독교교육이론서인 『기독교교육철학』(1996)을 출간하였고,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출간된 이 책은 여러 차례 중판될 정도로 인정받은 교과서였다.²⁴⁾

김성수(1949- ; 1977.3-2014.8 재직)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임용되었다. 김성수는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의 기초 탐구를 위해, 한편으로는 이근삼이 안내하고 소개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기독교교육학자 바트링크(Jan Waterink)의 책을 번역 출간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학자들의 문헌을 기초로 연구한 “개혁주의 교육관”(1978)을 발표하였다.²⁵⁾ 그리고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1981년 포츨스트룸대학교 교수연구 기회를 얻어 기독교교육철학전공으로 1984년에 교육학박

23) Yong Sub Kim, *Contours of a Scriptural Approach to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Ed.D. diss.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0.

24) 김용섭, 『기독교교육철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6).

25) J. Waterink, *Basic Concept in Christian Pedagogy*, 김성린, 김성수 역, 『기독교교육원론』(부산: 소망사), 1978. 이 번역서는 논문이 아니라 책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이론을 소개하는 최초의 번역서였다. 조성국,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의 이론적 과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연구』 제2집(2012), 196. 김성수는 자신의 개혁주의 세계관과 기독교교육철학에 이근삼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성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의 원리와 과제”, 『이근삼박사 사역 50주년 기념논집: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서울: 총회출판국, 2002), 525.

사 학위를 취득하여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자가 되었다. 그는 현대학교교육이론을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평하고 개혁주의 기독교학교이론을 개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²⁶⁾

한기태(1935-1995; 1979.9-1995.7. 재직)는 학교 지도자들의 기대와 고려신학교 전통에서 볼 때 제대로 준비된 이상적인 기독교교육학자였다.²⁷⁾ 그는 일찍 미국에 유학하여 칼빈대학과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신약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는 상담학으로 교육학석사, 교육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²⁸⁾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강사로 잠시 일한 후 미국 광대학교 조교수로 4년간 교육심리와 교육학을 가르쳤고, 1979년 고려신학대학 기독교교육학과로 옮겼다.

한기태는 개혁신학을 충분히 공부한 이후 교육학을 공부하였고,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돌아 온, 당시대 우리나라 대학 및 신학대학 여건에서 볼 때 최상의 국제성을 갖춘 학자였다. 한기태의 교육이력은 고려신학교 설립자 및 교수들이 기독교교육과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대했던 최상의 조건이었다. 그는 교육철학과 상담 영역의 연구물들을 남겼으며, 그가 번역한 코테스

26) Sung Soo Kim, *Modern School: Its Crisis and Its Future* (Ed.D. Diss. PUCHE, 1984).

27) 한기태는 고려신학교 설립자 한상동(1901-1976)의 동생이며 동역자였던 한명동의 아들이다. 자식이 없었던 한상동은 이근삼(누나의 아들), 한기범과 한기태(동생의 아들) 등 신학을 공부하고 뛰어났던 조카들에게 깊은 애착을 가졌다. 그는 한기태가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신학대학에서 일해주기를 원했다. 한기태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1971년 11월)에서 한상동은, “아무 조록 몸 조심하고 성공하여 한국에 돌아와서 큰아버지 세워 노흔 신학교를 맞아 주기를 바란다. 떠나는 순간 네게 부탁하고 쉽듯 말이다”고 썼다. 당시 한상동은 고려신학대학 학장이었고, 고령 탓에 한기태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한기태, “나의 큰아버님 한상동”, 이상규, 최수경 편. 『한상동 목사, 그의 생애와 사상』 (부산: 글마당, 2000), 225.

28) 한기태의 칼빈신학대학원 신약신학석사(Th.M.) 논문은 *The Meaning of the Son of Man Concept and Its Significance*(1966), 교육철학 박사(Ph.D.) 논문은 *Tenrikyo and Education*(1974)이었다.

키(Ronald L. Koteskey)의 『심리학의 기독교적 이해』는 기독교적 관점 이해에서, 코리(Gerald Corey)의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는 상담교육에서 주목받았다.²⁹⁾

강용원(1950- ; 1982.3-2015.8 재직)은 고려신학교와 교신교단의 전통에서 볼 때 실천신학에서 교회교육을 전공한, 곧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목사이며 교육신학자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과학교육을 공부한 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에서 칼빈의 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고려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며 신학적 관점에서 아동교육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작성하여 목회학석사학위를, 대학원에서 구약학 전공으로 신명기의 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임강사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1985년부터 스위스 쥐리히대학교에서 실천신학과 신약학을 공부하여 1990년 학교종교수업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³⁰⁾ 강용원은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의 맥락에서 교회교육을 깊이 연구하고 교수할 수 있는 교육신학자가 되었다.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수들이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들로 확립되는 과정에, 일반 교육학 및 교직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강사로는, 이화여자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친 후 교수조교로 임용되어 준전임교수로 강의했던 노경희(1979-1984년 재직), 기독교교육학과의 첫 번째 수석입학 및 수석졸업의 영예를 얻었던 김희숙(1983-1989 재직),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의 첫 번째

29) R. L. Koteskey, *Psycholog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한기태 역, 『심리학의 기독교적 이해』 (부산: 소망사, 1992); G. Corey,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한기태역,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85).

30) 강용원의 학위논문은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M.A. 1977), 『아동교육에 관한 신학적 접근』 (M.Div. 1979), 『신명기 신학에 나타난 계약의 문제』 (Th.M. 1981), *Probleme der Begründung eines christlichen Religionsunterrichts an der öffentlichen Schule im deutschsprachigen Europa und die Möglichkeit des Religionsunterrichts in Korea* (Th.D. 1990).

졸업생인 박선애(1983-1985)가 있다. 김희숙은 노경희의 경우처럼 전임교수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신학과의 기독교윤리학자 이보민은 10년(1982-1992) 동안 기독교교육과에서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에 해당되는 기독교인간학과 기독교사회윤리학을 강의하였다.

3.3. 기독교교육학과의 전공교육과정

기독교교육학과는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을 연구하고 기독교교육을 실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이어서 (1) 기독교신앙과 교회에 대한 신학, (2) 기독교교육의 이론, 역사와 방법, (3) 교육활동의 구조와 방법을 규명하는 교육학과 교직과정, 그리고 (4) 교육의 전문기관인 학교 교과 교사 양성 요건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전공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했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의 전공 교육과정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교육학과에 개설된 신학 기초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성경개론, 기독교교리, 헬라어AB, 기독교인간학,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신앙의 내용인 성경과 교리가 중심이 되고, 신학대학원 예비과목인 헬라어가 개설되었다. 그리고 인간과 교육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독교인간학과 신학윤리학이 개설되었다.

둘째,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의 교육을 위해 개설된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교육학개론(원리),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철학, 기독교교육과정, 유아학습지도, 아동교육론, 청장년(사역)교육론, 성경교수법, 교회교육(특강), 교회교육세미나, 기독교교육원강. 기독교신앙과 신학의 기초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의 기독교교육 이론, 역사, 과정을 심화시킨 후,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대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심화하였다.

셋째, 교육은 세계관에 따라 그 기초와 방향이 다를 뿐, 기독교공동체만 아니라 비기독교공동체에도 실행되는 보편적 활동이다. 그래서 교육자체의

구조와 방법을 연구하는 교육학은 기독교교육학과 전공교육에도 필수적이다. 신학과 달리 기독교교육학은 일반(교육, 사범대학)교육학과 공유하는 영역이 넓다. 이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사상사, 한국교육사, 비교교육, 현대교육특강, 교사론, 교육학원강.
- (2) 교육심리와 상담학: 교육심리, 심리학개론, 발달심리, 성격심리학, 정신위생, 인간(대인)관계론, 상담의 이론과 실제, 특수교육, 교수학습이론,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집단지도(실제),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연구법.
- (3) 교육사회와 교육행정: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김성수는 대학원에서 일관성 있게 (기독교)교육철학을 전공하였으므로 교육철학과 교육역사, 교육사회학을 가르쳤으나, 김용섭과 한기태는 박사과정 기준으로는 (기독교)교육철학자들이지만 석사과정에서 교육심리와 상담학을 전공하였으므로 교육심리와 상담학 과목들도 함께 가르쳤다. 강용원은 실천신학자로서 교육방법 과목을 가르쳤다. (일반)교육학과 교직과목에는 부분적으로 김상운을 비롯한 일반 교육학자들이 강사로 협력하였다.

넷째, 교사자격증 취득과목으로 개설된 과목들은 다음과 같다: 윤리과지도법, 교육실습, 생활지도 및 상담이론, 교육학교육론(1984-1989), 각과지도법. 기독교교육학과는 교사자격증과 관련하여, 학과 설치이후 1985학번까지는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았으므로 1988년 8월까지 국민윤리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했고, 1989년 졸업자에게는 교육학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했다. 사범대학 국민윤리과와 구분하여 1984학번 신입생부터 교육학과 졸업자에게는 교육학 2급 정교사자격증을 부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의 발전과 확장(1990-2016)

4.1.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기독교교육과로

1989년부터 우리나라 기독교교육학과는 교육부의 학문 및 교과구분 방식에 따라 기독교교육학과와 기독교(종교)교육과로 구별되었다. 기독교교육학과는 기독교계의 교육학과로, 기독교교육과는 기독교신학(종교학)의 교육으로 구분되었는데, 이는 사범대학에서 교육학과와 국민윤리교육과의 구별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는 역사적 발전에서 줄곧 그렇게 해 온 것처럼, 기독교교육과를 선택하여 신학계열로 분류되었다. 대학원은 기독교교육학과를 유지했다.

기독교교육과는 1990년 2월 졸업생부터 종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 사립중등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성경을 가르쳐 온 것을, 교육부가 1989년 종교 교과로 인정하여, 교양 선택으로 지정하고, 성경교과서를 검인정해 준 후, 1992년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명시하여 종교교과 교사가 정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후의 전공교육과정에 반영된 변화와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990년부터 신학 혹은 종교학 과목들이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종교학(개론), 비교종교학, 종교사에서, 2002년부터는 종교철학, 현대종교, 종교교육론, 종교(성경)교과교육(론), 종교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이, 그리고 이후에는 종교와문화, 종교심리학, 종교교과논리및논술이 부가되어 개설되었다. 종교는 교육부가 명시한 표현이어서 명칭을 변경할 수 없지만, 고신대학교에서는 곧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공과목의 내용은 사실

상 종교학을 신학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기독교교육과 교수 외에 한수환, 그리고 권경호가 겸임교수로 참여했다.

(2) (일반)교육학 과목들은 줄어들고, 그 대신 신학 및 교회교육 과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독교교리와윤리 외에도, 전공교과 안에 헬라이어AB, 구약신학, 신약신학, 성경과해석, 예배와설교를 개설하였고, 졸업조건에 구약성경시험과 신약성경시험을 합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신학대학원 진학을 위한 예비과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교회교육사역의 필요에 부응하여 제자훈련, (교회)교육과정개발, 교회교육방법론, 교회교육세미나, 청소년교육특강, 가정사역특강, 기독교성인교육, 디지털교육과 기독교교육, 교회정보화와 기독교교육, 학원사역론, 찬양사역 등을 추가하였다. 교회교육 분야에서 강용원은 우리나라 양대 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여 고신교단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학자로 인정받았고, 학회출판사의 전문저서들을 여러 권 출간하였다.³¹⁾

(3) 1991년부터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학교교육이 주목받았다. 김성수는 기독교세계관연구, 기독교가정 및 학교교육론, 현대문화와기독교교육을 개설하여 개혁주의 세계관과 철학, 기독교대학과 기독교학교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한국에 소개했으며, 이러한 주제들의 중심에 있는 외국 기독교(교육)철학자들의 초청 특강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외교를 해냈다. 김성수는 개혁주의 영역의 국제적인 학자들을 초청하여 특강과 집중강의로, 혹은 방문교수 및 석좌교수로 가르치게 하는 일에, 공적인 혹은 사적인, 희생적 노력을 다했다.

김성수가 기독교철학에서 토대로 삼았던 사람은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였고, 기독교교육철학에서 가장 집착하며 가르쳤던 것은 윌터스 톨프(Nicholas Wolterstorff)의 정의와 평화 교육이었다. 기독교학교교육에서 판다이크(John van Dyk)의 학습이론을 번역 출간하였고,³²⁾ 교육과정과 교수

31) 조성국, “강용원 교수의 교육신학과 목회상담신학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과 구조”, 『고신신학』 17 (2015), 57-77.

법에서는 판브루멜런(Harro van Brummelen)의 책들을 소개하였다. 기독교 교육과와 대학원에서 수 주간의 집중강의, 장기 방문교수 혹은 석좌교수로 참여했던 교수들은 판델스텔트(John C. van der Stelt), 캔허만(Kenneth W. Herman), 판델발트(Johannes L. van der Walt), 필윤(Charles Viljoen), 에들린(Richard Edlin) 등이다. 김성수 교수로 인하여 기독교교육(학)과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교육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과로 주목받아 교사선교회에 속한 초등, 중등학교 교사들이 전국에서 고신대학교(교육)대학원에 지원하여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신대학교는 북미, 네덜란드, 남아공 화국, 오스트레일리아 개혁주의 기독교대학 기독교(교육)철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4) 1990년부터 졸업생들이 기독교사회교육활동을 시도하도록 교육과정에 사회교육전문인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1990년부터는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1992년부터는 보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했으며, 2008년부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더불어 2014년대에는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과정들은 어린이집, 청소년(선교)단체, 평생교육원, 복지기관, (기독교)상담소 등으로도 기독교교육활동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교회들도 교육 및 전도차원에서 이러한 사역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기독교교육과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담심리와 청소년 교육 관련과목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4.2. 후속세대 기독교교육학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1980년대 초에 김희숙, 박선애가 기독교교육학과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학부강의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나, 전임교수 기준에서 보면, 1990년을 전후하

32) John van Dyk, *The Craft of Christian Teaching*, 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서울: IVP, 2003).

여 후속 세대 학자들이 전공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조성국, 임창호, 류혜옥이, 2000년대에 강연정, 2010년대에 서영준, 김세광, 이현철, 소진희, 함승애, 김미숙이 기독교교육(상담)학자로 전공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 김성수와 협력수업을 진행한 신영순은 전임교수는 아니었으나 학생들로부터는 그에 준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교육과 연구에서 드러난 후속학자들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교육학 교육과 연구가 더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조성국(1957-)은 1989년부터 학부강의에 참여하였고, 1992-1993년 교수조교로 일했으며, 유학이후 1997년 전임교수가 되어,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인간학,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철학 과목을 담당하였다. 그는 기독교교육학과의 학부, 신학대학원, 대학원을 거쳐, 포츨스트룸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철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연구한, 개혁주의 기독교교육철학자였다.

조성국은 교회교육과 관련하여는 교리교육을 연구했고, 기독교교육학과 관련해서는 기독교세계관과 인간학, 기독교교육철학, 한국기독교교육의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1세대 학자들이 과제로 남겨 둔 기초분야, 곧 기독교교육학의 신학 및 기독교철학적 토대를 해명하고, 네덜란드어와 아프리칸스어 문헌으로부터 기독교교육철학을 해명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총회교육원에 참여하여 주일학교 교과서개발을 주도하였고, 교육과정과 정책을 평가하고, 교사통신대학 학장으로 교회교사 교육에 기여하였다.

임창호(1956-)는 1993년 전임교수가 되어 1996년까지 일했고, 미국에서 10년간 목회한 후, 2006년 복귀하여 교육철학과 교육역사를 가르쳐 왔다. 그는 기독교교육학과와 신학대학원을 거쳐, 일본 히로시마대학교에서 교육철학을 전공했고, 독일의 신학자 쉴라이어마허의 사상에서 교제의 교육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과 일본의 교육학과 기독교

교교육학에 학문적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06년 복귀한 직후부터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기독교교육학회에 통일교육 분과를 개척하여 주목받았고, 특히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학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기독교 통일교육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여 기독교대안학교 영역을 넓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하였다.

이현철은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연구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교육학의 과제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전문성을 도구로 갖춘 후 교수진에 들어왔다. 이현철은 사회조사 등 경험적인 연구방법으로 한국교회 교육현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연구와, 전문적 수준에서 교단교육 정책서를 만드는 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그리고 교육학 영역에서 연구의 생산성으로 주목받았고, 연구방법론 교육으로 기독교교육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진희와 신영순은 고신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월터스토폴프의 기독교교육철학을 연구하였고,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기독교 가정및학교교육을 가르쳤다.

(2) 기독교상담학이 대학원에서는 독립전공이 될 정도로 확장되었다.

초기부터 (기독교)상담학을 가르쳤던 한기태가 1996년 소천하자, 해당영역에 실천신학자인 강용원이 자신의 연구범위를 넓혀 목회상담학을 가르쳐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는 연구에서 목회상담의 성경신학적 의미를 해명하는데 기여하였다.³³⁾ 류혜옥(1961-)은 계명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공부한 후 1991년부터 강의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

33) 조성국, “강용원 교수의 교육신학과 목회상담신학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과 구조”, 57-77.

전임교수로 일했다. 류혜옥은 사회교육전문요원과 보육사양성과정에서 요구되는 상담심리 관련 과목들을 담당하였고, 전공교육과정에 상담심리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 기독교상담대학원을 설립하여 정착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학회발전에 기여했다.

기독교상담 교육과 연구는 강연정에 의해 더 발전하였다. 강연정(1962-)은 2000년 전임교수로 임용되었고, 박사학위과정을 위해 잠시 떠났다가, 2007년 다시 복귀하였다. 강연정은 기독교교육과 학부와 대학원, 포항공itech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서 기독교상담심리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독교교육과 출신의 첫 번째 기독교상담학자였다. 이전의 기독교상담 교수들이 주로 이론 교육과 철학적 연구에 머물렀다면, 강연정은 기독교상담 주제에 있어 신학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를 동시에 지도하고 연구하는 기독교상담학자이고, 여러 상담관련 전문자격증을 갖춘 임상상담사로서 기독교청소년상담소와 기독교상담소를 설립하였으므로, 학과는 기독교상담사 양성교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로는 1990년대에 최혜란, 변영인이, 2000년대 후반에는 기독교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함승애와 김미숙이 전공교육에 참여하였다. 함승애는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이후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가족상담을 연구했고, 김미숙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영어교육을 공부한 후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상담이론을 연구했다. 함승애와 김미숙은 학부와 기독교상담대학원의 기독교상담심리 교육에 참여하였다.

(3) 기독교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의 전문사역자 양성을 시도하였다.

기독교교육과는 청소년에게 종교(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이므로 기독교청소년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과 졸업생들 중에는 동남권 청소년사역에서 주목받는 지도자들이 많다. 2000년대에 청소년사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 전문사역자 양성과 재교육이 절실했다.

청소년교육과 상담영역에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것은 강연정이었고, 2010년대에는 김세광이 전공교육에 참여하였다. 김세광은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한 이후 교회청소년사역자로 일했고,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청소년전문가였다.

2008년부터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영준은 기독교교육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거쳐, 동아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을,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평생교육을 전공하여 호스피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기독교교육학자이다. 그는 의료보건 전공 대학생들과 전문인들을 지도하는 선교단체 대표를 지낸, 청년선교사역 전문가였다. 그는 평생교육 영역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임용되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주도하였다.

(4) 대학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의 석사과정은 1978년 개설되어 2015년 현재까지 256명이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회와 선교, (대)학교와 사회교육에서 기독교교육자로 일하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국내에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전공의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포챗스트룸대학교와, 대학원 코스웍을 고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교류협정을 맺어 박사과정을 운영했고, 모두 4명이 포챗스트룸대학교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 교육부로부터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개설을 허락받아 독자적으로 기독교교육학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기 시작했다. 박사과정 기독교교육학전공과 기독교상담학전공에서 2015년 현재까지 32명의 박사학위자를 배출하였고 그 중 3명은 외국인이었다.

교육대학원도 인가받아 2000년부터 기독교교육전공과 상담심리전공을 운영하여 기독교인 교사들을 재교육해왔고, 2010년대에는 평생교육전공도 개설하여 평생교육사를 양성해왔다. 그리고 기독교상담대학원이 2007년 개설되어 교회와 기독교상담소에서 일할 전문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설립된 선교목회대학원의 치유사역전공도 목회상담학 전공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기독교상담 전문사역자를 양성했다. 여러 특수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개설하고 있었던 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2016년 치유사역전공은 폐지되었다. 이처럼 2000년 이후에는 대학원 교육이 크게 활성화되어 전문적인 기독교교육가와 기독교상담가들을 배출하였고, 박사과정 운영과 더불어 학술연구 및 학자양성이 가능해졌다.

(5) 고신교단의 교회교육에 주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에 기독교교육(학)과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기독교교육(학)과는 교단 교회교육에 직접 기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단(종교)교육부를 교단 지도부 목사들이 주도했고, 교육부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총회 총대가 되어야 하나 기독교교육과 교수들이 그 조건에 해당되지 못했다. 1991년까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진에 목사로는 강용원 교수가 유일했고, 학부 졸업생들이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교수들은 교사통신대학, 총회교육정책협의회, 교육과정 분석과 교과서 개발, 기독교교육포럼 등에서 강의나 자문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교단교육에 참여하였다. 2000년대부터는 총회교육원과의 협력관계가 크게 제고되어, 교육과정 개발에 깊이 참여하였고, 주일학교 교과서(그랜드스토리)와 청소년부 교과서(클릭바이블)는 100만부 이상 판매되는 경이적인 실적을 얻었다. 교수목사였던 강용원, 김성수, 조성국은 총회교육원 이사, 총회교사대학 학장, 특히 강용원은 총회교육원장으로도 일했다. 2012년 교단교육조사 및 정책서 작성에 이현철과 더불어 사회조사방법이 적용되었고, 교회교육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1세대 교수이후 기독교교육과의 남자교수들은 모두 교단 목사여서 교단교육에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총회교육원의 나삼진과 이기룡은 기독교교육학과에서 교회교육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기독교교육학과는 총회교육원 사역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지원을 했다. 2009년 총회교육원은 고신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에는 총회교육원 부산사무소를 기독교교육연구소 내에 마련하여 상호 협력하였다. 총회교육원 원장 및 연구원들인 나삼진, 박흥철, 제인호, 이기룡이 순차적으로 기독교교육과 전공교육에 참여하여 교회교육과 교육과정 개발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회교육 전문가 양성에 기여해 왔다.

5. 나가면서

고신대학교 70년 역사에서 기독교교육과의 역사적 발전양상은 (1) 종교교육과의 준비와 실험(1946-1976), (2) 기독교교육학과의 확립(1977-1989), (3) 기독교교육과의 발전과 확장(1990-현재)으로 구분된다. 기독교교육은 교회와 기독교공동체의 본질적 활동이므로 첫 시기에 기독교교육은 신학교육 내의 실천과목에서 전문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분화된 독립학과로 실험되었으나, 여건이 구비되지 못하여 지속되지 못했다. 두 번째 시기는 초기 기독교교육학자들이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자들로 구비되어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 교육의 토대를 확립한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신학계열 내에서 종교(기독교, 성경)교사를 양성하는 전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활성화하여 (1) 신학, 교육신학, 기독교세계관의 토대에서 교회교육과 기독교신앙교육, 그리고 기독교학교교육을 심화하였고, (2) 기독교상담을 분화하여 전문화하였고, (3) 청소년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교육영역에서 기독교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는 고신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을 확립하여 발전시켜 왔다.